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된다.

(행2:45)

부제 : 금성교인,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들 (마5:3-12)

신앙지침

1. 역동적인 예배
2. 뜨거운 기도
3. 열정적인 전도
4. 풍성한 나눔
5. 양세대 양육

[2015년 4월 19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겔 37:7-14

제목 :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말씀 :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어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겔37:9-10)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

활의 계절 꽃이 피는 4월이 되면 제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행동하는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입니다. 본회퍼는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집안은 학자, 법률가 집안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자란 본회퍼는 베를린 대학 신학부에 입학하여 21세에 신학박사 학위, 23세에 대학교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천재 신학자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정권은 본회퍼에게 영적으로 깊은 고민을 갖게 했습니다. 독재자 히틀러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친 사람이 차를 몰고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나는 성직자니까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나 치러 주고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에 뛰어올라 미친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아야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본회퍼는 고위정보국에 근무하던 매형과 함께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가 배신자의 밀고로 탄로 납니다.

히틀러는 자기의 암살 음모에 정보부가 연관되었음을 알아내고, 많은 저항자들을 적발하여 집단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런 후에 나치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945년 4월 9일 이른 아침, 저항에 참여한 그의 가족 3명을 포함한 5천명의 사람들과 함께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주 후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연합군에게 항복합니다. 그래서 본회퍼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를 그렇게 꽃피는 계절에 데리고 가셨습니까? 하고 후에 주님을 만나면 왜 물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꽃피는 4월이면 본회퍼가 죽은 4월 9일이 생각나며 본회퍼목사가 그리기도 합니다.

본회퍼가 살았던 고통스러운 시대에 나치의 포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Viktor Emil Frankl)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며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가족들과 함께 기차에 실려 유대인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잃고 수용소를 전전하다 기적처럼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프랭클은 자신의 저서에서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이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독가스실에서 사람을 죽인 범죄)과 비인간적인 확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희망이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나치의 무서운 고문을 받으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꿈을 키웠습니

다. “무서운 고문의 시대가 언젠가는 끝난다. 그러면 나는 이 수용소에서 나가 내가 붙잡은 이 삶의 희망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해 주겠다. 이 끔찍한 고문을 넘어서서, 이 절망적인 환경을 넘어서서 저 건너편에 있는 희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는 끝까지 이 고문을 견디겠다.”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꿈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삶의 희망의 의미를 말하는 위대한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캄캄한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회복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는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어두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찬란한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가를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이 본문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에서도 밝게 일어서는 삶의 자세를 찾을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서 밝게 일어서는 자들은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에스겔은 그 골짜기에서 뼈들을 봅니다. 골짜기에는 뼈가 심히 많았고 아주 말랐습니다. 한번 성경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37:2절 말씀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때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살리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4-6절입니다. “(4)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5)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6)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상을 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왜 생기가 없을 까 고민을 하는 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다. 9절입니다. “(9)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은 또 그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은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놀라움에 빠져 있는 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 주면서 다시 대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11절-14절입니다. “(11)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12)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에 포로로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로생활의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큰 군대로 삼아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백성이 될 날이 오는 밝은 미래를 보면서 소망을 이야기 했습니다. 어떻게 에스겔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에서도 회복되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밝음을 노래했으며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재판받을 때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바리새인이라고 하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사이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바울을 지키려고 하고 사두개파는 바울을 잡

아가려고 합니다. 천부장이 자칫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 것 같아서 군인들을 동원하여 가서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행 23:10-11절입니다. **“(10)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소망을 말하는 자가 되려면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환상을 보지 못하면 현실만 봅니다. 그래서 삶이 답답합니다. 밝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근시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전달자로 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두움의 환경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도 포로생활에 끌려갔지만 그는 늘 그발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지금의 포로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바른 뼈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이 되어서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삶의 형편이 절망입니까? 건강의 형편이 어두움입니까? 앞길이 막막합니까? 살맛이 없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그 환상을 보는 자들만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대언하는 자들만이 소망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전한 말을 그대로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왜 에스겔의 대답을 들은 후에 대언하라고 하셨습니까?** 입술에 고백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죽은 것도 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그 믿음**

을 보시고 대언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대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대로 옮긴다. 배달한다는 말입니다.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번역은 <예언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배달하는 것, 외치는 것 그게 대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죽은 것 같지만 다 살아나게 하는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대언해야 합니까? 주님이 모든 절망에서 소망을 주심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 살아나게 하신 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시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현실만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늘 불평이요 절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어두운 면만, 부정적인 면만 보면서 불평하고 이제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좌절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은총을 입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신데 늘 죽는다고 생각하는 영하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에게 뭐라고 대언하라고 하십니까? 12-14절입니다. “(12)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13)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14)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의 그 절망하는 마음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영을 받아야 절망의 무덤이 열립니다.** 새 영을 받아야 어두움의 무덤 문이 열립니다. **새 영은 부활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소생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으로, 소망의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절망을 주는 소망 없는 무덤이 열리게 됩니다.

온 교우들이 같이 기도한 현우를 처음 중환자실로 기도하러 갔을 때 그 상황이 절망이었습니다. 의사의 말도 희망보다는 절망을 더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제가 확신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기능 중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기능은 귀입니다.** 제가 설교중 이 부분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갔을 때 현우가 의식이 거의 없었지만 귀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듣는 줄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후에 이 아이가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한 것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병실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달리다굼.”**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한 열 살 정도 되는 회당장의 하나 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었을 때 그 현장에서 울지 말라 하시면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하시면서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죽은 소녀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도 **“달라다굼”**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달리다굼”**하셔서 살리셨는데 현우는 살아있고 아직은 중환자이지만 반드시 일어나서 부모님 곁에 앉아서 예배드릴 날이 올 줄을 믿으면서 **“달리다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무덤입니까?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무덤은 어떤 것입니까? 자녀의 결혼입니까? 가족의 일터입니까?

그 무덤 문이 다 열려서 다 회복이 되어서 승리의 꽃을 피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사망의 무덤 문을 여신 분이십니다. **현실의 어둠을 보지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영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말씀을 붙잡고 주시는 대로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대언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 있**

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내가 너희 무덤 문을 열고 너희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회복의 은총을 입혀주신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황제 루이 14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짐이 곧 국가다.” 라고 외치면서 베르사유 궁전을 완성하고 프랑스 권위를 만방에 널리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톨릭 성도로서 신교를 방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신교신자들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박해의 손길을 뻗쳐 왕의 칙령을 거역했다는 죄로 <세오졸프>라는 사람을 체포하여 파리 탑의 옥에 감금했습니다. 얼마 후에 부활절이 되어 루이 14세는 황제의 복장을 갖추고 호화찬란한 부활절 행렬대를 거느리고 파리 시가를 행진하였습니다.

높은 감옥의 탑 위에서 이 행렬을 바라본 <세오졸프>는 부활의 찬양을 부르라는 하늘의 영감을 받아 찬양을 힘차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예수 부활하사 사망권세 이겼네. 구주예수 부활하사 사망권세 이겼네.”**

이렇게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의기양양하게 행진해 가던 루이 14세의 양심을 때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왕 중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제는 부활 축제 행렬을 세우고 옥으로 들어가 <세오졸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을 빌고 그를 석방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실화입니다.

대언하는 은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의 순종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 1주기를 맞은 유족들에게 주님께서 유족들의 마음에 있는 절망의 무덤 문을 소망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그 무덤에서 나와서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는 은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서도 늘 소망을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